

민관 사례관리 이해와 자원연계 교육

-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필수 복지상식-

이용교

(광주대 교수, 복지평론가)

제1강 복지급여,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.

1. 모든 국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사례

* 가난한 사람에서 모든 국민으로, 헌법상 복지권, 복지रो와 129 전화 활용

-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.
-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.
-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은 공공부조를 받아서 최저생활 이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.
- 일하는 사람은 5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주요 복지정보는 '복지로' 홈페이지에 있고,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
- 생애주기별로 어떤 복지가 있는지,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.
- 아동양육시설에서 산 청년이 자립하기 위해서 교육, 주거, 고용, 의료, 인간관계까지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.

2. 긴급복지의 이해와 활용

* 긴급복지 수급자 선정방식, 복지지원 종류와 활용

-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소득과 재산 기준이 부합해야 합니다.

- 소득(기준 중위소득의 75%), 재산, 금융재산이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.
- 지역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,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습니다.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준(소득, 재산, 금융재산)보다 더 높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, 더 오랫동안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.
- 추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, 해산비, 장제비, 민간자원 연계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계하고,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자활할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.
- 자살을 시도하였다면 우선 의료지원을 하고,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확보하고, 직업알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. 또한,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.

제2강 우리 집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?

3. 공공복지를 맞춤형으로 활용하기

- * 가구의 범위, 소득인정액, 소득평가액, 재산의 소득환산액, 공제소득 등
 - 가구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
 - 별도 가구를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.
 -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.
 - 소득평가액은 모든 가구원이 버는 근로소득+사업소득+재산소득+이전소득의 합계입니다.
 - 그중 근로소득은 30%를 공제받는 것 등이 있습니다.
 - 가구 특성별 지출요인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.
 -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비를 산정해야 합니다.
 -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 자녀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따로 살면 같은 가구원이고, 자녀가 취업하여 따로 살면 별도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되지만 함께 살면 동일 가구가 됩니다.

4.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와 활용

- * 기초수급자 선정방식, 복지급여 종류와 활용
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할 때 선정됩니다.

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면 교육급여, 45%이하면 주거급여,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비 합계액이 40%이하면 의료급여, 30%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.
-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적용되고,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.
- 생계급여는 생계비를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, 의료급여는 병원비와 약값을 지원하며, 주거급여는 통장으로 입금해주며,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지원합니다.
- 주거급여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. 단순히 임차료를 지원받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.

제3강 저소득층은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.

5. 출산·양육과 교육 사례 지원

- * 임신·출산, 아동수당, 아동양육수당, 긴급돌봄, 교육급여, 국가장학금 ...
- 산부인과에서 “임신”을 확인하면 보건소에 ‘산모등록’을 하기 바랍니다.
-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‘임신·출산’관련 급여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랍니다.
- ‘임신확인증’을 가지고 다니면 KTX를 일반요금으로 특실을 탈 수 있습니다.
- 자녀를 출산하면 ‘산모 지원사업’과 ‘출산 아동’지원사업을 활용하기 바랍니다.
- 휴대폰으로 ‘아동수당’을 신청하면, 7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집에서 아동을 키우면 ‘가정양육수당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‘아이행복카드’를 신청하기 바랍니다.
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. 자녀가 교육급여 수급자이면 가구원 모두가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.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학교에 특례입학 수 있고, 국가장학금만으로 국립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.
- 젊은 한부모 가족은 자녀교육도 시키고 본인도 고등·대학교육을 받아서 직업능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.

6. 주거 지원 사례

- *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,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방법

-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.
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% 이하이고 신청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거급여를 받는 것을 넘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에 도전하기 바랍니다.
- 아동양육시설·공동생활가정 퇴소자라면 '자립지원시설'을 활용하고 학교 기숙사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.
- 토지주택공사의 지원을 받아 '전세자금 대출'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소득능력이 낮다면 영구임대주택이 저렴합니다.
- 매입임대주택, 국민주택, 행복주택, (분양조건형)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.
- 가구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가구당 평균소득의 120%(2020년 기준 3인가구 6,752,276, 4인가구 7,471,610, 5인가구 8,326,024) 이하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.
- 토지주택공사,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검색하기 바랍니다.
- 지원 조건이 다양하기에 생애주기별로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(돈이 거의 없는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라면 대학교에 진학하여 자립지원시설에서 살고, 졸업 직전에 행복주택으로 옮기고,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하여 국민주택이나 분양조건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갈아타는 방식입니다)
- 가정폭력, 성폭력 등으로 학대받는 사람(주로 여성·노인)은 '주거 분리'를 하면 단독가구가 되고,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쉽게 수급자가 되는데, 이때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면 쉽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.

제4강 자산형성제도와 사회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.

7.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

- * 워크넷, 자활급여, 자립수당, 두루누리지원, 청년내일채움, 새일센터 ...
- 일자리를 찾는다면,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하기 바랍니다.
- 워크넷에서 구인 정보를 검색하고 지원서를 쓰기 바랍니다.
- 아동양육시설·공동생활가정 퇴소자와 가정위탁보호 종료자 등은 자립수당을 신청하면, 매달 3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직업학교에 등록하면 기술을 배울 수 있고, 일자리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바랍니다.

- 월급이 215만원 이하라면 ‘두루누리 지원사업’을 꼭 활용하여 지원받기 바랍니다.
-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‘새로 일하기 센터’를 활용하기 바랍니다.
- 조건부 수급자 등은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돈이 돈을 벌기에 소득에서 자산형성으로 중심을 이동하기 바랍니다.

8. 나와 가족을 위한 사회보험 활용

* 국민연금, 건강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의 주요 내용과 활용 사례

- 5대 사회보험을 알고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.
-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, 길게 가입하며, 한 푼이라도 많이 내야 이익입니다.
- 국민연금의 반납, 추납, 임의가입, 임의계속가입, 연기제도, 분할연금 등을 알고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.
- 건강보험은 건강검진을 잘 활용하고, 암검진도 받기 바랍니다.
- 병원은 보건소, 의원, 병원, 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이 있고, 외래와 입원에 따라 다릅니다.
- 15세 이하, 65세 이상 노인, 희귀난치병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.
- 요양병원(건강보험)과 요양시설(요양보험)은 다른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.
- 고용보험은 임신·출산과 자녀 양육 관련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- 산재보험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.
-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회보험의 적용 사례를 늘리고, 비슷한 상황에서 적용한 사례를 공유해야 합니다.

강사: 이용교 교수 ewelfare@hanmail.net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저자
<https://www.aladin.co.kr/shop/wproduct.aspx?ItemId=234275555>